

# 사회적경제 통합 유통지원 플랫폼 착공

### 전주시,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사업 착공식 개최... 총 160억원 투입 2025년 9월 건립 예정

전주푸드 효천점 인근에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끌 거점시설이자 유통지원센터 역할을 할 '사회연대 상생마당'이 들어선다.

시는 12일 전주푸드 효천점 옆 부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전북도 관계자, 입주기업 관계자, 유관기관 단체장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도약과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인 사회연대 상생마당 건립 착공식을 가졌다.



전주시는 12일 전주푸드 효천점 옆 부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전북도 관계자, 입주기업 관계자, 유관기관 단체장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도약과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인 사회연대 상생마당 건립 착공식을 가졌다.

사회연대 상생마당은 오는 2025년 9월까지 국비 19억 원과 도비 16억 원, 시비 125억 원 등 총 16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3750㎡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물 1층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전시·판매장과 더불어 물품 저장을 위한 저장고 등이 들어서고, 2층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시제품 제작실과 사무공간 등 성장지원센터로 조성된다.

또한, 건물 3층~4층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주민 공동체 생활문화공간으로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미주점공간(주민 공동체 공간) △학습공간(회의 등) △방문주(합창, 악기 등 연습 공간) △120석 규모

의 공연장 등을 갖출 계획이다.

시는 향후 시설 건립이 완료되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높일 경제·생활·문화 복합센터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운영 초기 단계 이후에는 단순

한 운영을 넘어서 사회적경제기업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 컨설팅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해 전주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 성장 기반시설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광역거점 플랫폼인 사회연대

상생마당이 사회적경제기업인과 활동가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선순환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고, 강한 경제 전주를 이끌 새로운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 축제 성공 기원 시민이 빛은 전통술

### 전주한옥마을 문화시설 특화축제 기간 맞출 수 있어

오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펼쳐지는 '2023 전주한옥마을 문화시설 특화축제' 기간 전주전통술박물관은 찾는 시민과 여행객은 전주시민들이 빛은 전통술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전통주의 공공성과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전주 전통술 박물관은 지난 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2023 전주 한옥마을 문화시설 특화축제' 준비를 위해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20명을 선착순 모집해 무료 전통주 교육을 진행했다.

옛 조상들은 가가호호 집에서 술을 빚어 집안의 대소사에 그 집안만의 '주방문'으로 술을 빚어 사용했다. 전통적으로 집에서 빚어온 가양주는 나눔의 문화이기도 하다. 이날 교육에서는 전통문화를 계승과 한발 더 나아가 가양주 문화를 복원하는 의미로 '전통도시 전주 축제의 술은 우리 손으로 직접 빚겠다'는 전주시민들이 모여 특화축제에 나눔 되어질 '향운주'와 '방문주'를 함께 빚었다.

시민들이 빚은 '향운주'는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술로 알려져

있다. 12양주까지 빚어서 술의 품격을 올린 전통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전주 전통술 박물관에서 연구한 식임을 사용했다고 한다.

또한 '방문주'는 옛 문헌에 다양한 제조 방법으로 등장하는 술이다. 방문주를 빚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며, 박물관에서 밑술을 준비하여 두 번 빚는 이양주이다. 방문주는 주로 봄, 가을철에 빚는 술로 알려져 있는데 가을의 문턱에서 빚어 그 맛과 향기가 기대되는 술이다.

2023 전주한옥마을 문화시설 특화축제 성공을 기원하며 전주시민들이 정성을 담아 빚은 술은 10월 28일 전주전통술박물관을 찾은 모든 전주시민과 관광객의 시음을 위해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만드는 치매친화사회'

### 전주시보건소, 19일 한국전통문화전당서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전주시보건소는 오는 19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치매인식개선과 치매극복을 위한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세계 치매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995년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와 함께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 정부도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9월 21일을 법정기념일로 운영하고 있다.

16회를 맞는 이번 기념식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만드는 치매친화사회'를 주제로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과 주관으로 열리며, 치매환자 및 가족 등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1부 치매 홍보영상 상영과

기념식, 전주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 2부 다 함께 즐기는 치매인식개선 연극 '그대는 봄'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치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매예방교육 △치매에

방교실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치매예방의 중요성과 방법을 널리 알려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재능 나눔' 자원봉사자 양성 나서

전주시가 재능과 경험을 키워 지역 사회에 나눔을 실천할 재능 나눔 봉사자 양성에 나섰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12일 전문재능 봉사자 양성을 위한 '2023년 하반기 자원봉사 특화교육' 과목별 개강식을 가졌다.

오는 11월 초까지 총 15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사업봉용을 사용해 손에 압박과 자극을 주는 '서툼요법' △귀 상응 부위에 기동석을 사용

해 증상을 예방하는 '귀반사건강화' △헤어컷트를 배우는 '이·미용' △신체의 기능을 조절하고 바이오볼을 사용해 질병을 예방하는 '임지건강법'의 총 4개 과목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봉사활동 현장 실습을 시작으로 향후 사회복지 시설과 전주시 각종 문화행사 등에서 전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재능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게 된다.

/김욱기 기자

## 건강한 노후 대비 '전주시 금융아카데미' 개최

100세 시대를 맞아 전주 시민들이 길어진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강좌가 마련됐다.

전주시는 12일 전주시혁신크터 다울마당에서 일반시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 현금으로 준비하자'를 주제로 '2023년 제3회 전주시 금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시민들의 건강한 노후 대비를 위해 △자산건강 체크 △성공적인 자산관리 △연금의 특징과 활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교육을 위해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늘어난 기대수명에 맞춰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아낌없이 금융 노후유를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시는 이날 교육에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금융이해를 돕는 다양한 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시행

전주시가 올해도 어린이와 노인, 임신부 등 건강 취약계층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오는 20일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어르신·임신부·시 자체 접종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어린이

의 경우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된다.

또한, 시는 그간 국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50세~64세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전주시 재원을 활용해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전주시 자체 무료 예방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자체 접종은 경우 10월 26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063-281-6251)와 덕진보건소(063-250-3913), 전주시콜센터(063-222-1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